

## 종교적 체험과 해석학적 묘사\*

최신한\*\*

**주제분류** 현대독일철학, 해석학

**주요어** 종교적 체험, 해석학적 묘사, 미쉬, 쾨니히, 볼노

### 요약문

종교적 체험은 새로움의 체험이다. 이 논문은 새로움의 체험을 괴팅엔 학파의 해석학을 통해 규명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현상학적-해석학적 묘사 개념을 분석한다. 현상학적-해석학적 묘사는 종교적 체험을 드러낼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이다. 첫째, 이 논문은 게오르크 미쉬의 불러내는 말을 분석한다. 불러내는 말은 사실세계 너머에 있는 존재를 불러냄으로써 초월적 세계를 드러낸다. 불러내는 말은 종교적 체험, 즉 측량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현시한다. 미쉬는 전통논리학을 해석학적 논리학으로 확장함으로써 무한자를 개념화하려고 한다. 둘째, 이 글은 요제프 쾨니히의 심미적 작용을 분석한다. 심미적 작용은 인간을 예술작품과 연결하며 예술작품을 하나의 사실로 현시한다. 심미적 작용의 술어는 규정적 술어가 아니라 변양하는 술어이다. 변양하는 술어를 통해 존재의 의미가 내면 가운데 발생한다. 심미적 작용은 내면 가운데 새로움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종교적 체험과 유사하다. 새로운 의미의 원천은 새로운 존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작용이다. 셋째, 이 논문은 볼노의 분절적 묘사를 분석한다. 분절적 묘사는 정신적 삶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종교적 체험을 드러낼 수 있다. 정확한 말은 감추어진 존재를 깨어나게 하며 이를 현실 가운데 등장시킨다. 괴팅엔 학파의 해석학은 삶의 불가사의성과 비소진성에 진입하는 길을 제공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 1. 종교적 체험과 삶의 해석학

종교적 체험은 새로움의 체험이다. 이 체험은 종교적 의미가 새롭게 발생하는 삶의 사건이다. 새로움의 체험은 삶을 보다 생동적으로 만든다. 삶의 사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며 이로써 새로운 의미지평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새로운 실존과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 새로운 실존은 유한한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자의 힘에서 나온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체험은 일상적 체험과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 논문은 새로움의 체험을 삶의 해석학의 방법을 통해 묘사하려고 한다.

현상학적·해석학적 묘사<sup>1)</sup>는 주어져 있는 대상세계의 묘사를 넘어선다. 종교적 체험은 유한한 세계의 경계를 초월하여 무한자와 만나는 독특한 체험이다. 무한한 체험은 유한자의 지평을 넘어서므로 유한자를 서술하는 언어를 통해서서는 드러낼 수 없다. 무한한 체험은 애당초 선(先)언어적이고 초언어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의 해석학은 무한한 체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무한한 체험은 학문 밖의 영역에 남는다.<sup>2)</sup>

종교를 체험으로 파악한 근대의 선구자는 슐라이어마허이다.<sup>3)</sup> 그에게 종교의 본질은 직관과 감정이다. 무한자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맛봄으로써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새로운 주체로 거듭난다. 전

- 
- 1) 묘사(Beschreiben)는 전문용어로 쓰이며 ‘기술’(記述)이나 ‘서술’로 표현할 수 있다.
  - 2) ‘종교적 체험’을 ‘종교적 경험’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한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Erlebnis*를 *lived experience*로 옮기는 경우에서 보듯이 체험과 경험은 큰 틀에서 동일하며, 체험은 경험론자들의 경험 개념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종교적 체험이 결코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경험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3) 최신한, 「종교는 체험이다」, 근대철학회, 『종교철학』, 문학과 지성사 2015.

적으로 새롭고 고유한 무한자를 일상 언어와 오성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라져 버린다. 종교적 체험의 자리는 형식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곳이며 합리적 파악이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 종교적 체험은 학문적 언어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전통 형이상학과 신학도 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론』의 ‘셋째 강연’은 합리적 이해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이해의 광기”<sup>4)</sup>라고 비판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자만은 종교의 본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성에 억눌린 “감각의 해방”<sup>5)</sup>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체험은 감각능력에 대한 세밀한 파악에서 보존될 수 있으며 이를 담아내는 특별한 언어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

종교적 체험은 감각을 이성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개인의 종교체험을 위해서는 말 없는 명상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과 언어가 필수적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론』 ‘넷째 강연’에서 종교적 전달의 조건을 다룬다. 설교자는 “경찰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열에 따라 청중을 획득하기보다 성향 능력의 유사성에 따라 청중을 얻어야 한다.”<sup>6)</sup> 종교적 체험을 수학공식이나 형식논리에 따라 전달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언어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언어적인 모든 노력과 언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일시적이며 감동적인 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술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웅변조나 설교식으로 말하는 방법과 달리 종교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는 없

4) “Wut des Verstehens”, F. D. E. Schleiermacher,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Göttingen 1967, 최신한 옮김, 『종교론.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기독교서회 42010, 127쪽.

5) Schleiermacher, 『종교론』, 141쪽.

6) Schleiermacher, 『종교론』, 184쪽.

다.”<sup>7)</sup>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종교적 체험을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지평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종교적 체험의 차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논리와 새로운 묘사가 필요하다. 슬라이어마허가 말하는 ‘감동적인 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및 ‘응변과 설교의 방법’은 형식논리와 일상 언어의 지평을 넘어선다. 딜타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삶의 철학과 삶의 철학의 방법론으로 응답한다. 딜타이에서 삶의 철학의 방법론은 해석학이다. 큰 틀에서 보면 삶의 철학과 삶의 해석학에서 우리는 종교적 체험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압축판은 ‘현상학적-해석학적 묘사’에 들어있다.

현상학적-해석학적 묘사는 후설과 딜타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새로움의 체험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고 한 미쉬(G. Misch), 쾨니히(J. König), 볼노(O. F. Bollnow)의 고유한 이론에 토대를 둔다.<sup>8)</sup> 이들의 이론은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괴팅엔 학파’를 형성한다. 딜타이와 괴팅엔 학파에서 삶은 ‘불가사의하고 신비적인’(unergründlich) 것이며 결코 ‘소진되지 않는’(unerschöpflich) 것이다. 삶은 생명이며, 생명은 그 자체가 무한한 것이다. 진정한 삶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으며 그 전개에서 신비적인 것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삶은 위기를 맞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측량할 수 없는 삶의 ‘신비함은 인간 삶의 내적 위력에 대한 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sup>9)</sup> 측량할 수 없고 파

7) Schleiermacher, 『종교론』, 156쪽.

8) F. Kümmel, *Spricht die Natur?*, Hechingen 2014, 최신한 옮김, 『자연은 말하는가?』, 탐출판사 1995 참조. 이 책은 독한대역본으로 한국에서 먼저 출판되었다.

9) O. F. Bollnow, “Georg Misch und der Göttinger Kreis”, in: Bollnow, *Studien zur Hermeneutik, Bd. II, Zur hermeneutischen Logik von Georg Misch und Hans Lipps*, Freiburg/München 1983, 35쪽.

악할 수 없는 삶의 위력은 인간 인식능력의 결핍으로 표현되지만 이는 동시에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삶의 신비함은 인간을 가능성과 위력으로 이해하는 전제이며 근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개방성이다.”<sup>10)</sup>

가능성으로서의 삶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으로 현실화된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요소 가운데 종교적 체험은 결정적이다. 이 체험은 일상의 경험과 달리 유한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초월적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월적 존재와의 접촉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을 천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것은 인간내면에서 일어나는 초월의 체험이다. 철저하게 깨어있는 내면에서 초월적 존재와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험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누미노제의 체험이며 거룩함의 체험이다. 이것은 마이스터 엑크하르트가 말하는 ‘신비적 합일’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체험은 내재적-초월적 삶으로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다. 이러한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과 개방성이 나온다. 결국 종교적 체험은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힘과 위력이다.

술라이어마허 이후 종교에 대한 논의는 체험주체와 무관하게 언급될 수 없다면, 종교는 체험하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심원한 현실이다. 종교는 “인간과 그 질서가 신비스럽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심원한 현실차원에 묶여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sup>11)</sup> 중요한 것은, 쉽게 다가갈 수 없고 확인하기 어려운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하며, 이 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종교는 감정의 고양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삶의 힘이 출현하는 과정이다.”<sup>12)</sup>

10) Bollnow, “Georg Misch und der Göttinger Kreis”, 35쪽.

11) W. Gantke, “Die religionsphilosophische Relevanz der Hermeneutik von Otto Friedrich Bollnow”, in: F. Kümmel (Hg.), *Otto Friedrich Bollnow. Rezeption und Forschungsperspektiven*, Hechingen 2010, 119쪽.

삶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기계적 과정이 결코 아니다. 삶의 새로움은 시간의 연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과정도 아니다. 삶의 새로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돌파이며 심원한 현실로의 진입이다. ‘돌파’로 표현되는 삶의 상황은 그 자체가 초월적 운동이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도약이다. 그러므로 돌파하는 삶은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이며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함이다. 질적인 탁월함으로 진입하는 돌파를 통해 실존은 새로운 힘을 획득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의 의미를 획득한다. 돌파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세계는 실존적 의미의 토대이지만, 이 토대와 근거는 실존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존은 이 근거에 대해 무한히 신뢰하며 이로부터 삶의 생명력을 얻는다. 이 토대를 ‘존재 자체’로 부를 수 있으며 ‘거룩함’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이름부여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토대로 남는다.

삶은 해명할 수 없는 근거와 관계할 때 새로운 삶으로 이행할 수 있다. 변화된 삶은 심원한 현실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삶의 철학은 ‘심원한 현실’, ‘알 수 없는 존재’, ‘거룩함’ 등에 대한 해명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위 삶의 해석학이 출현한다. 이것은 “초월에 개방적인 삶의 해석학”<sup>14)</sup>이다. 괴팅겐 학파의 종교철학적 성과는 삶의 해석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2) G. Klappenecker, “Otto Friedrich Bollnow: Der Beitrag seines Ansatzes für eine Theorie religiöser Bildung”, in: Kümmel (Hg.), *Otto Friedrich Bollnow. Rezeption und Forschungsperspektiven*, 162쪽.

13) 전통 종교에서는 이 자리를 신이 차지한다.

14) Gantke, “Die religionsphilosophische Relevanz der Hermeneutik von Otto Friedrich Bollnow”, 129쪽.

## 2. 불러내는 말 - 미쉬의 해석학

‘삶의 돌파’는 게오르크 미쉬가 몰두한 중심주제이다. 돌파는 삶을 에워싸고 있는 장애물과 한계를 내면의 힘으로 뚫고 나아간다. 돌파를 통해 한계가 사라질 때 삶에는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한계의 이편과 저편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편에서 저편으로 나아가는 이행도 확인된다. 삶의 돌파는 두 세계에 대한 체험이며, 그것도 한계 너머의 세계에서 얻는 새로움의 체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파는 애당초 철학함의 활동과 같다. 철학함을 통해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서 알지 못했던 세계를 접하고 경이로움에 빠진다. 철학함에서 나오는 경이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준다.<sup>15)</sup>

삶의 해석학에서 돌파는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돌파는 한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무지를 이해로 바꾼다. 이런 점에서 ‘이해’와 ‘가능’은 동일하다. “이해는 본질의 실행이 아니라 본질의 고유한 가능성을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가능성이다.”<sup>16)</sup> 따라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해주체의 삶을 새로운 의미로 채운다. 일상성과 실존의 차이가 ‘존재가능’에 있듯이, 한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해주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준다. 새로운 가능성은 세계와 무관한 인간내면의 운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는 이해가 개방하는 새로운 세계의 운동도 들어있다. 변화된 삶에는 새롭게 열린 세계와 실존이 통일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해는 주체-객체-대립을 이미 극복했다. 중요한 것은 이해를 통해 이 세계가 처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게오르크 미쉬는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 천착

15) G. Misch, *Philosophische Fibel*, 참조.

16) K. Giel, “Umriss einer hermeneutischen Philosophie. Zwischen Phänomenologie und Lebensphilosophie”, F. Kümmel (Hg.), *O. F. Bollnow: Hermeneutische Philosophie und Pädagogik*, Freiburg/München 1997, 19쪽 이하.

한다. 종교철학적으로 본다면 이 세계는 종교적 체험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새롭게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주체를 변화시킨다. 관건은 새로운 세계의 현시와 드러남이다. 삶의 해석학은 바로 여기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체험의 해석학은 신과 거룩함의 영역을 드러내는 과제를 갖는다.

미쉬는 논리학과 명제의 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명제의 의미는 화자(話者)나 저자의 사유과정을 통해 규정된다. 전통논리학은 명제를 판단에 국한시키고 이를 사고추리의 연관 속에서 파악한다. 이미 주어져 있는 판단에 근거하는 사고가 올바른 사고이며, 이 사고를 표현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다. 미쉬는 이러한 말을 논증적 말 또는 개념적 말(diskursives Sprechen)로 규정한다. 예컨대 사실에 대한 규정, 자연법칙, 수학명제, 정의(定義) 등은 논증적 말이다. 그런데 삶에는 논증적 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험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분명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경이로운 체험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

미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논증적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체험이 문제이다. 모든 체험이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입장은 헤겔의 정신철학과 일맥상통 한다. 헤겔은 오성의 고정된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을 개념의 운동을 통해 체계화 한다. 미쉬도 말과 무관한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삶은 말과 연관되어 형성되며, 새로운 삶은 말을 통해 만들어진다. 미쉬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unsagbar) 것도 표현할(aussprechbar) 수는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극단적 한계일 뿐 그 반대는 아니다.”<sup>17)</sup> 헤겔이 오성을 넘어서는 이성을 요구한다면, 미쉬는 논증적 말을 넘어서

17) O. F. Bollnow, *Studien zur Hermeneutik, Bd. II, Zur hermeneutischen Logik von Georg Misch und Hans Lipps*, Freiburg/München 1983, 164쪽.

는 또 다른 말을 창안한다. 이것이 바로 ‘불러내는 말’ 또는 ‘환기(喚起, evozierend)하는 말’<sup>18)</sup>이다. 이 말은 개념 너머에 있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불러내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unergründlich) 삶의 의미를 현시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해석학적’이다.<sup>19)</sup>

불러내는 말의 대명사는 시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에 있다. 시인의 말은 일상어를 벗어나며 논증적 말을 뛰어넘는다. 시인이 말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가 시어(詩語)를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시인의 생각이 시어로 나타나고 이것이 대상과 맞아떨어짐으로써 이 대상은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 대상은 시인의 말과 접촉할 때 ‘전율하면서’(erzittert) 등장한다. “대상은 꼭 맞는 말과 접촉하면서 언어의 행위를 통해 전율한다.”<sup>20)</sup>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대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미쉬가 주장하는 ‘불러내는 말’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이를 현실로 불러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러내는 말은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을 묘사한다기보다 시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을 통해 현시되는 세계를 불러낸다. ‘불러내는 말’은 대상세계와 사실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불러냄으로써 초월적 세계를 드러낸다. 불러내는 말을 통해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러내는 말은 종교적 체험을 언어적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개념적인 말과 논증적인 말이 담아낼 수 없는 무한자까지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학적 논리학이 작동한다. 미쉬는 전통논리학을 해석학적 논리학으로 확장함으로써 전통논리학이 개념화할 수 없었던 무한자까지 개념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쉬의 삶의 철학이 추구하는 “생동적

18) G. Misch, “Die Idee der Lebensphilosophie in der Theorie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Österreichische Rundschau*, Nr. 20, 1924, 359-372쪽.

19) V. Schürmann, *Die Unergründlichkeit des Lebens. Lebens-Politik zwischen Biomacht und Kulturkritik*, Bielefeld 2011, 143쪽 이하 참조

20) G. Misch, *Lebensphilosophie und Phänomenologie. Eine Auseinandersetzung der Diltheyschen Richtung mit Heidegger und Husserl*. Darmstadt 1967, 96쪽.

개념”과 “삶의 개념”이다.<sup>21)</sup>

### 3. 심미적 작용 - 쾨니히의 해석학

종교적 체험의 영역은 생활세계의 영역과 겹칠 수 있지만 애당초 이 영역을 벗어난다. 종교적 체험은 생활세계 속에서 대상화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이 영역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종교적 체험의 영역은 체험주체를 동요시키고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단절에서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세계와 접촉할 때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있으며 놀라움의 전율이 일어난다. 슬라이어마허는 이를 ‘우주’와의 접촉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전통 형이상학에서처럼 이론적 전제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삶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삶의 해석학의 도움으로 명료하게 되어야 한다.

쾨니히의 고유한 이론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그의 논문 「심미적 작용의 본성」<sup>22)</sup>은 기본적으로 예술영역의 논의이지만, 쾨니히는 이를 전통 진리관의 확장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대상영역은 예술에서 자연으로 확대되며, 자연에서 초자연적 세계로 넓혀진다. 쾨니히는 괴테를 인용하면서 심미적 작용을 설명한다. “예술은 전체의 파괴력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개인의 노력에서 나온다.”<sup>23)</sup> 예술이나 예술 작품의 힘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체에 대한 반작용의 힘에서 나

21) G. Misch, *Lebensphilosophie und Phänomenologie*. 170쪽.

22) J. König,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in: J. König, *Vorträge und Aufsätze*. Hrsg. v. G. Patzig, Freiburg i. B. 1978, 256-337쪽.

23) König,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262쪽.

온다. 예술이 자기만의 고유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등장과 동시에 사라지는 한갓된 존재자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작용력은 몰락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을 안정적으로 보존한다. 예술의 작용이 그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궤니히는 예술작품을 대할 때 형성되는 인간의 내면성에 주목한다. 새로운 내면성은 예술작품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심미적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작용에 꼭 맞아 떨어지는 말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24)</sup> 여기서 심미적 작용은 이 작용에 꼭 맞는 말과 일치한다. ‘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은 심미적 작용의 고유한 영역을 느낀다.

심미적 작용, 심미적 작용으로 형성된 인간의 내면성, 그리고 심미적 작용에 일치하는 정확한 말, 이 셋은 동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심미적 작용은 이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 내면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심미적 작용은 이를 언어적 묘사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심미적 작용을 묘사하는 것은 묘사로서의 바로 이 작용 자체이다.”<sup>25)</sup> 심미적 작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용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심미적 작용에 대한 묘사와 동시에 그 작용이 일어난다. 심미적 작용에 대한 묘사가 언어적 묘사인 한에서 이 작용을 묘사하는 말은 새로운 세계와 존재자를 드러내는 힘을 갖는다. 심미적 작용만 있고 묘사가 없을 때 그것은 아무런 작용 없이 사라진다. 묘사하는 말은 인간 내면의 힘을 반영하므로 예술의 작용과 이에 대한 내면성의 응답은 묘사로 구체화된다.

심미적 작용은 ‘일어남’이나 ‘사건’으로 규정된다. 심미적 작용은 “작용자와 피작용자가 각각 독자적 존재자로서 작용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작용자, 작용함, 작용으로 구분되는 구조전체 가운데

24) König,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264쪽.

25) König,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267쪽.

오로지 계기로만 등장하는 사건이다.”<sup>26)</sup> 따라서 심미적 작용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예컨대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경우 술이 원인이며 취함은 술의 작용이다. 술 취함의 작용이 있기 전에도 술은 존재한다. 술 취함을 통해 비로소 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심미적 작용의 주체는 그것이 작용하기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심미적 작용과 더불어 이것에 영향 받은 인간의 내면이 언어적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심미적 작용과 비심미적 작용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심미적 작용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술어’와 ‘변양하는 술어’를 구별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쾨니히는 『존재와 사고』<sup>27)</sup>에서 이 두 가지 술어에 대해 다룬다. 규정하는 술어는 “무엇을 사실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술어인 반면, 변양하는 술어는 “인상을 파악하는” 술어이다.<sup>28)</sup> “색깔, 소리, 냄새 등과 같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의 성질은 규정적 속성이나 규정적 술어의 사례이다. 이에 반해 ‘이성적’, ‘옳은’, ‘아름다운’, ‘좋은’, ‘타당한’, ‘고귀한’ 등과 같은 단어는 변양된 술어로 불려야 한다.”<sup>29)</sup> 우리는 규정적 술어를 통해 아무런 의심 없이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술어는 이 대상에 덧붙여지는 말이다. 여기서는 ‘대상이 작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변양된 술어의 대상은 쉽게 규정할 수 없으며 항상 동일하게 규정할 수도 없다. 어떤 행동이 옳고 타당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행동을 쉽게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타당한 행동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행동이 나

26) O. F. Bollnow, “Über den Begriff der ästhetischen Wirkung bei Josef König”, in: *Dilthey-Jahrbuch für Philosophie und Geschichte der Geisteswissenschaften* Band 7/1990-91, Göttingen 1991, 25쪽.

27) J. König, *Sein und Denken. Studien im Grenzgebiet von Logik, Ontologie und Sprachphilosophie*, Halle 1937.

28) F. Kümmel, 『자연은 말하는가?』, 98쪽 이하.

29) Bollnow, “Über den Begriff der ästhetischen Wirkung bei Josef König”, 18쪽.

에게 옳은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를 옳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이 행동은 옳은 행동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행동을 옳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와 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다’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쾨니히는 이렇게 변양하는 술어가 심미적 작용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술어라고 생각한다.

심미적 작용은 인간을 예술작품과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 작용이 없으면 인간과 예술작품은 서로에게 낯남이다. 이 작용을 통해 인간은 예술작품과 연결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미적 작용은 바로 이 작용을 통해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로 현시한다. 이 현시를 통해 인간은 예술작품의 고유한 내용적 규정을 획득한다. 예술작품의 현시는 예술작품 쪽에서 나오는 운동이라면 이를 이 예술작품만의 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감상자 쪽에서 나오는 운동이다. “예술적 산출의 사건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건이다.”<sup>30)</sup> 이 두 가지 운동은 설명을 위한 구별일 뿐 사태 자체의 구별이 아니다. 예술적 체험은 심미적 작용을 수반하면서 해당 예술작품의 진정한 사실을 드러낸다. 바로 이곳이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는 마당이다.

심미적 작용의 이러한 특성은 ‘매개된 직접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sup>31)</sup> 심미적 작용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른 것에 의해 매개된 것도 아니다. 대상과 내면성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현상인 것이다. “쾨니히는 ‘그렇게-작용함’과 ‘그러한-성질로-작용함’의 일치를 논리적 중간자로 파악한다.”<sup>32)</sup> 대상이 그렇게-작용하며, 내면성이 이를 바로 그러한-성질의-작용’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에 내면성의

30) König,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300쪽.

31) V. Schürmann, *Die Unergründlichkeit des Lebens. Lebens-Politik zwischen Biomacht und Kulturkritik*, 171쪽 이하 참조.

32) Schürmann, *Die Unergründlichkeit des Lebens*, 176쪽.

자기-매개가 개입한다. 작용이 전적으로 대상 쪽에서 나오는 운동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적으로 비본래적인 것(대상)도 아니고 전적으로 본래적인 것(내면성)도 아니라는 데에서 새로운 체험과 논리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미적 작용은 종교적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술라이어마허가 『종교론』에서 ‘예술종교’를 언급한 이래 예술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sup>33)</sup> 종교적 체험은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체험으로서 ‘우주’를 순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얻는 내면의 변화이다. 술라이어마허에게 종교적 체험은 직관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애당초 수동적이다. “모든 직관은 직관되는 존재가 직관하는 존재에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출발하며 (...) 직관되는 존재의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에서 출발한다.”<sup>34)</sup> 직관되는 존재는 우주가므로, 종교적 체험은 무한자의 영향과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종교는 우주를 직관하려 하며 우주의 고유한 서술과 행위 속에서 그에게 경건히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스스로 어린아이의 수동성으로 우주의 직접적인 영향에 사로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sup>35)</sup> 따라서 종교적 체험은 우주의 영향과 작용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성취된다.

심미적 작용과 종교적 작용의 유사성은 이들 작용을 통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새로움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종교적 새로움과 예술적 새로움을 구별하기에 앞서, 이 새로움은 체험주체에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현실 저편의 내용이다.

33) W. Braungart, M. Koch, G. Fuchs (Hg.), *Ästhetische und religiöse Erfahrungen der Jahrhundertwenden*,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1998; A. Franz, W. G. Jacobs, *Religion und Gott im Denken der Neuzeit*,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2000; S. Altmeyer, *Von der Wahrnehmung zum Ausdruck. Zur ästhetischen Dimension von Glauben und Lernen*, Stuttgart 2006 참조.

34) Schleiermacher, 『종교론』, 60쪽.

35) Schleiermacher, 『종교론』, 56쪽.

심미적 작용에서 예술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종교적 작용에서 신적 사실이 드러난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체험주체를 흔들어놓으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새로운 의미의 원천은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없으면 체험주체에게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슐라이어마허는 자기직관과 세계직관의 종합에서 예술종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sup>36)</sup> 자기 속에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 속에서 세계를 만날 때 자기와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의미결정체가 등장한다. 이것은 양자의 종합이므로 자기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다. 심미적 작용에서 예술작품의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듯이 종교적 작용에서 무한자의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새로운 의미는 모두 자기 속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토대 위에 발생한다. 자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확실한 체험이다. 이러한 변화의 체험은 그때마다 삶을 새롭게 형성한다. 새로운 삶의 형성은 새로운 우주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우주의 작용에서 새로운 우주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창조의 중요한 계기이다.

심미적 작용과 종교적 작용의 유사성은 종교가 예술적이라는 사실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 예술과 종교는 합리성과 오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과 접촉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예술과 종교는 한계를 초월하려는 내면의 힘을 통해 무한한 세계와 만날 수 있다. 예술이 자연의 내면화라면, 종교는 또 다른 자연의 내면화이다. 자연의 내면화가 고유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이러한 현상은 종교에서도 유사하게 펼쳐진다. 무한한 자연을 내면 가운데 소유하려는 노력은 그때마다 상이한 의미를 가져온다. 중요한 것은 상이한 내용 가운데 보편의 편린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한자와의 접촉에 적용되는 “예술적 원리”이다.<sup>37)</sup>

36) Schleiermacher, 『종교론』, 144쪽 이하 참조.

37) 에밀 브룬너는 슐라이어마허의 종교개념을 “우주적 미학주의”로 부르며, 헤겔은 프로테스탄트의 내면성에서 “예술적 원리”를 통찰한다. W. Braungart, M. Koch,

## 4. 본질적 묘사/명료한 묘사 - 볼노의 해석학

종교적 체험은 삶을 가로지르는 체험이며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종교적 체험에서 사람들은 삶의 심연을 맛보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한자와 접촉한다. 미쉬는 이러한 돌파를 통해 도달하는 삶의 새로운 경지를 언급하며, 궤니히는 이 새로운 경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세미한 작용을 다룬다.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구체화하려는 괴팅엔 학파의 노력은 인식론 및 해석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삶의 해석학은 말과 언어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전통 논리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인식론과 논리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논리적 개념의 경계 밖에 있는 새로운 의미를 위해 볼노는 고유한 해석학적 철학<sup>38)</sup>을 전개한다. 해석학적 철학의 중심개념은 ‘철학적 묘사’(philosophische Beschreibung)이다.

볼노는 미쉬가 말하는 ‘돌파’의 체험을 중시하면서 일상적 삶을 넘어서는 놀라움과 경외의 순간을 주제화한다. 그는 낭만주의적 자연탐구자 슈베르트(G. H. Schubert)의 말을 빌려 이 순간을 ‘우주적 순간’으로 표현한다. 우주적 순간의 체험은 슬라이어마허의 종교적 체험과 유사하다. “빠르고도 신비스럽게 한 형상과 한 사건이 우주의 형상으로 전개된다.”<sup>39)</sup> “이 순간은 종교 속의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는 시간이다.”<sup>40)</sup> 이 우주적

G. Fuchs (Hg.), *Ästhetische und religiöse Erfahrungen der Jahrhundertwenden*, 158쪽.

38) ‘철학적 해석학’을 전개한 가다머도 이 개념을 인정한다. F. Rodi, “Hermeneutische Philosophie im Spätwerk von Otto Friedrich Bollnow”, in: F. Kümmel (Hg.), *O. F. Bollnow: Hermeneutische Philosophie und Pädagogik*, Freiburg/München 1997, 67쪽; H.-G. Gadamer, “Die Hermeneutik und die Diltheyschule”, in: *Philosophische Rundschau*, 38 (1991), 174쪽 참조.

39) Schleiermacher, 『종교론』, 74쪽.

40) Schleiermacher, 『종교론』, 75쪽.

순간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심연을 맛보며 여기서 무한한 세계의 영혼과 몸을 느낀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과 심금의 울림을 체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실재의 깊이를 맛보는 것이다. 분노는 이러한 순간체험을 언어로 묘사함으로써 쉽게 접할 수 없는 존재를 포착하려고 한다. “묘사는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붙들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전달하는 것’을 더욱 깊이 파헤칠 수 있게 한다.”<sup>41)</sup>

묘사에는 기본적으로 ‘실제적 묘사’와 ‘사실적 묘사’가 있다. 실제적 묘사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분실물 센터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의 크기와 색깔 등을 지칭할 때 쓰인다. 사실적 묘사는 학문적·과학적 묘사이다. 식물학이나 동물학에서처럼 탐구대상을 낱낱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묘사한다. 이것은 아무런 전제 없는 묘사이며 앞서 형성된 개념체계나 사상의 힘을 배제하는 묘사이다. 이들 묘사와 달리 해석학적 철학에서 다루는 묘사는 ‘명료한 분절적 묘사’(artikulierendes Beschreiben)이다. 명료한 묘사는 일상언어를 넘어서는 “섬세한 언어”(subtilere Sprache)를 요구한다.<sup>42)</sup> 이것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사실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명료한 묘사는 실제적 묘사나 사실적 묘사와 달리 정신적 삶의 현상을 기술한다. 정신적 삶이나 영혼의 삶은 이미 존재하는 사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신적 삶은 그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담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적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삶에 걸맞은 말을 찾아야 한다. 묘사에 쓰인 말이 정신적 삶의 사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화살이 과녁을 맞히듯이 말이 정신적 삶의 사실을 맞혀야 한다. 그것도 적확(的確)하게 맞혀야 한다. 적확한 말을 찾아내는

41) O. F. Bollnow, “Versuch über das Beschreiben”, in: *Hommage à Richard Thieberger. Publications de la Faculté des Lettres et Sciences Humaines de Nice*, N° 37 - 1ère série, Les Belles Lettres 1989, 59쪽.

42) Ch. Taylor, *Die Formen des Religiösen in der Gegenwart*, Frankfurt <sup>4</sup>2013, 89쪽.

것은 사실적 묘사가 추구하는 정확한 말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적 묘사의 대상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명료한 묘사의 대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삶은 명료한 묘사를 통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볼노는 명료한 묘사가 새로운 삶의 현상을 ‘산출’한다고 말한다.<sup>43)</sup> 이렇게 삶의 현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적 묘사’로 불리기도 한다. 정확한 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삶의 현상은 미쉬와 쾨니히가 주장하는 새로움의 구조와 같은 맥락에 있다. 불러내는 말에 의해 전율하는 대상이나, 심미적 작용을 묘사하는 순간 묘사하는 사람에게 등장하는 심미적 작용과 유사하다.

말하기 전에는 말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으며, 말로 묘사하기 전에는 묘사되는 정신적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신적 사실과 이를 묘사하는 말 이전에 양자와 관련된 힘이 있다. 왜냐하면 이 힘에 의해 정신적 현상과 말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노는 이 힘의 영역을 무한자로 간주하며 이를 ‘근원적 신비적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이 영역은 단순히 말과 묘사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 형이상학적 영역이다. 이곳은 모든 존재와 현상의 원천이다. “인간은 과거에 사물들과 통합되어 살았으며 이 사물들의 언어를 이해했던 근원적 의식”<sup>44)</sup>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확한 말로 묘사하면 묘사된 사물은 ‘깨어나면서’ 세계로 등장한다. 사물은 불러내는 말에 대한 응답한다. 그리고 올바른 묘사는 사물을 “각성”<sup>45)</sup>시킨다.

사물 입장에서 본다면, “명료한 묘사의 대상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끄는 것이다. (...)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와서 스스로 얘기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주요 문제이다.”<sup>46)</sup>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

43) Bollnow, “Versuch über das Beschreiben”, 63쪽.

44) Bollnow, “Versuch über das Beschreiben”, 65쪽.

45) Bollnow, “Versuch über das Beschreiben”, 64쪽.

46) F. Kümmel, 『자연은 말하는가?』, 93쪽.

의 마음을 끄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말을 발견해야 한다. 명료한 묘사는 이러한 말의 발견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런 영역에 존재하던 사물은 이를 불러내는 명료한 묘사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사물의 등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명료한 묘사는 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료한 묘사는 전이해를 넘어서는 불노의 명료한 묘사는 전이해와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노력에서 현상학적이다. 명료한 묘사는 전이해와 선입견을 중시하는 가다머의 해석학과 거리가 멀며, 판단중지를 통해 사실의 본성에 접근하려는 현상학에 가깝다. 불노의 “해석학적 처리방법은 전이해와 무관하게 문화와 전통의 한계를 뚫고 나간다.”<sup>47)</sup>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료한 묘사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의 생기해석학은 불노의 해석학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명료한 묘사의 방법은 종교적 체험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종교적 체험은 무엇보다 새로움의 체험이며 이전에 없었던 의미의 전유(專有)이다. 종교적 체험이 종교현상으로 남으려면 이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필요하다. 명료한 묘사는 종교적 체험의 영역을 드러내며 이를 타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묘사는 그 어떤 묘사이든 언어적 표현이므로 전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교적 체험에 대한 명료한 묘사를 통해 고유한 종교현상이 확인되며, 이것은 분절적 묘사의 도움으로 상호소통의 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다. 불노가 의도하는 명료한 묘사는 일상을 넘어서는 시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를 드러내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식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종교적 체험을 통해 인간 삶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처럼, 확장된 삶은 명료한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된다.

47) K. Giel, “Umriss einer hermeneutischen Philosophie. Zwischen Phänomenologie und Lebensphilosophie”, 44쪽.

참고문헌

- 최신한, 「종교는 체험이다」, 근대철학회, 『종교철학』, 문학과 지성사 2015.
- Altmeyer, S., *Von der Wahrnehmung zum Ausdruck. Zur ästhetischen Dimension von Glauben und Lernen*, Stuttgart 2006.
- Bollnow, O. F., *Studien zur Hermeneutik, Bd. II, Zur hermeneutischen Logik von Georg Misch und Hans Lipps*, Freiburg/München 1983.
- \_\_\_\_\_, “Versuch über das Beschreiben”, in: *Hommage à Richard Thieberger. Publications de la Faculté des Lettres et Sciences Humaines de Nice*, N° 37 - 1ère série, Les Belles Lettres 1989.
- \_\_\_\_\_, “Über den Begriff der ästhetischen Wirkung bei Josef König”, in: *Dilthey-Jahrbuch für Philosophie und Geschichte der Geisteswissenschaften* Band 7/1990-91, Göttingen 1991.
- Braungart, W / Koch, M. / Fuchs, G., (Hg.), *Ästhetische und religiöse Erfahrungen der Jahrhundertwenden*,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1998.
- Franz, A. / Jacobs, W. G., *Religion und Gott im Denken der Neuzeit*,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2000.
- Gadamer, H.-G., “Die Hermeneutik und die Diltheyschule”, in: *Philosophische Rundschau*, 38 (1991).
- Gantke, W., “Die religionsphilosophische Relevanz der Hermeneutik von Otto Friedrich Bollnow”, in: F. Kümmel (Hg.), *Otto Friedrich Bollnow. Rezeption und Forschungsperspektiven*, Hechingen 2010.
- Giel, K., “Umriss einer hermeneutischen Philosophie. Zwischen Phänomenologie und Lebensphilosophie”, F. Kümmel (Hg.), *O. F. Bollnow: Hermeneutische Philosophie und Pädagogik*, Freiburg/München 1997.

- Klappenecker, G., “Otto Friedrich Bollnow: Der Beitrag seines Ansatzes für eine Theorie religiöser Bildung”, in: Kümmel (Hg.), *Otto Friedrich Bollnow. Rezeption und Forschungsperspektiven*, Hechingen 2010.
- König, J., *Sein und Denken. Studien im Grenzgebiet von Logik, Ontologie und Sprachphilosophie*, Halle 1937.
- \_\_\_\_\_, “Die Natur der ästhetischen Wirkung”, in: J. König, *Vorträge und Aufsätze*. Hrsg. v. G. Patzig, Freiburg i. B. 1978, 256-337.
- Kümmel, F., *Spricht die Natur?*, Hechingen 2014, 최신한 옮김, 『자연은 말하는가?』, 탑출판사 1994.
- Misch, G., “Die Idee der Lebensphilosophie in der Theorie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Österreichische Rundschau*, Nr. 20, 1924, 359-372.
- \_\_\_\_\_, *Lebensphilosophie und Phänomenologie. Eine Auseinandersetzung der Diltheyschen Richtung mit Heidegger und Husserl*. Darmstadt 1967,
- Rodi, F., “Hermeneutische Philosophie im Spätwerk von Otto Friedrich Bollnow”, in: F. Kümmel (Hg.), *O. F. Bollnow: Hermeneutische Philosophie und Pädagogik*, Freiburg/München 1997.
- Schleiermacher, F. D. E.,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Göttingen 1967, 최신한 옮김, 『종교론.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기독교서회 42010.
- Schürmann, V., *Die Unergründlichkeit des Lebens. Lebens-Politik zwischen Biomacht und Kulturkritik*, Bielefeld 2011.
- Taylor, C., *Die Formen des Religiösen in der Gegenwart*, Frankfurt 42013.

## Religious Experience and Hermeneutic Description

Choi, Shin-Hann (Hannam Univ.)

Religious experience is the lived experience of the new. This paper aims to illumine the lived experience of the new through methods of hermeneutics in Goettingen school, and for this it intends to analyse the concept of phenomenological-hermeneutic description. First, this paper analyses Georg Misch' concept of evoking speech. Evoking speech reveals the transcendent world by means of awakening the being beyond the world. It unveils religious experience, e.i. the inestimable significance of life. Misch intends to extend traditional logic to hermeneutic logic, and as a result of that he can conceptualize the infinite. Second, this paper analyses Josef König's concept of aesthetic effect, that connects human with artwork and reveals this as a fact. The predicate of aesthetic effect is not the determined predicate, but the modifying. It occurs a significance of being in inwardness with the help of the modifying predicate. The aesthetic effect is similar with religious experience in regard that it makes the new in inwardness. The origin of new significance is the effect that makes human as a new being. Third, this paper analyses Bollnow's concept of articulating description. It can reveal the religious experience through hitting the spiritual life aptly. The hitting speech evokes concealed being. The hermeneutics of Goettingen school presents ways to the inscrutability and inexhaustibility of life.

Key words: religious experience, hermeneutic description, G. Misch, J. König, O. F. Bollnow

최신한 E-mail: ch0111@hnu.kr

|       |               |
|-------|---------------|
| 투 고 일 | 2017년 01월 16일 |
| 심 사 일 | 2017년 01월 26일 |
| 게재확정  | 2017년 02월 08일 |